

## 에넥스 일본 환경사업 본격화 로얄티 첫 입금

에넥스의 해외 환경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에넥스는 일본 화광제작소로부터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LEGR-ICGR)에 대한 기술 이전 로얄티 4천만엔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로얄티는 에넥스가 환경사업 진출 이후 첫 가지적인 성과.

에넥스는 지난 2001년 이 장치의 일본내 판매권에 대해 화광제작소와 총 6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 일본 공인시험 기관인 니산디젤기술연구소 시험을 통과한 이후 로얄티 입금이 시작됐다”며 “현재 디젤자동차 저감장치 최종 시험단계인 내구성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넥스의 LEGR장치는 고유황경유(350ppm)에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탁월한 경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대경엔텍, 미생물 활용 오폐수 정화

대경엔텍(www.dkme.com)은 허수·분뇨·축산폐수 등 유기성 폐수의 오염물질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처리 환경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중 하나는 2001년 환경부에서 환경신기술 검증을 취득한 B3(Best Bio Bacillus) 시스템.

B3시스템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바실러스균 등의 미생물을 이용해 질소(N)와 인(P) 등이 포함된 오·폐수와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정화하는 공법이다.

이 시스템은 질소와 인 등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없애주며 기존 시설의 간단한 개·보수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하수와 축산, 분뇨처리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B3시스템은 현재 오산, 충주, 용인, 기흥, 방어진 하수처리장과 울산여천, 장수축산, 남양주 축산폐수처리장 등 하폐수와 축산, 분뇨처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중국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중국 후난성 침주시와 4만 t의 처리가 가능한 150억원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10년 간 운영사업(BOT)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경엔텍은 지난해 재고수주와 해외진출에 힘입어 올해 1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쿠아테크, Symbio공정 파일럿테스트 성공

수처리전문 환경업체인 아쿠아테크는 최근 Symbio공정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총 430억 규모의 경기도 안산시 하수고도화사업의 핵심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정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시를 통해 “현재 정부당국은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질소 및 인 농도를 규정치 이하로 낮추는 고도화 사업을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안산시가 일일 40만톤의 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사업에 아쿠아테크의 Symbio 공정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쿠아테크는 “기존 Biosuf 공정에서 18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며, 안산시 하수고도화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올해 매출은 지난해 매출 규모인 70억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포플러 부용 등 중금속 흡수 '탁월'

중금속 흡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물은 포플러, 가죽나무, 갯버들, 부용(芙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은 최근 폐광산과 공업단지 인근 식물들의 중금속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 나무는 포플러와 가죽나무, 화훼류로는 부용과 큰금계국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포플러의 평균 중금속 흡수치는 비소 22.5ppm, 납 6.3ppm, 카드뮴 3.3ppm이고 가죽나무는 비소 28.5ppm, 납 4.4ppm이었으며 갯버들은 비소 12.0ppm, 구리 10.0ppm, 카드뮴 5.7ppm을 흡수, 보통 나무들보다 13배에서 최고 173배까지 흡수량이 많았다. ◀